

“4.3 민중항쟁 정신 계승, 불평등 세상 바꾸자”

74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금속노조, 북촌초 등 학살 터 돌며 투쟁 결의

“탄압이면 항쟁이다, 민중을 위해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전국에서 모인 1,5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948년 제주도민들이 평등·자주·새 사회 건설을 위해 싸우다 학살당한 사건, ‘4.3 민중항쟁’을 기억하며 외쳤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4월 3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4.3 민중항쟁 정신 계승 74주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4.3 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집단학살·반인도 범죄 공식 사과와 배상·보상, 진상규명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제주의 노동자 민중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저항했고, 평등하고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해 싸웠다”라며 “74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 땅은 여전히 불평등하고,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은 노동



조합 대한 전면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시간, 고용관계, 임금체계를 유연화해 장시간, 저임금, 자유로운 해고를 하겠다며 선전포고했다”라고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의 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재벌과 자본의 청탁을 받아 개악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는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다”라면서 “우리 노동자는 제주 민중의 저항정신을 계승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운란 민주노총 제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제주 민중은 해방 후 새 세상을 기대했지만, 친일과 미 군정이 야합해 희망을 갱그리 지워버렸다”라며 “계층

과 직업, 빈부를 뛰어넘어 도민들이 1947년 3월 10일 총파업으로 항쟁을 시작했다”라고 항쟁의 기원을 설명했다. 양운란 본부 수석은 “자주 민중 세상,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4.3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불평등한

현재를 바꾸는 투쟁 조직화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불평등을 타파하자’라는 손팻말을 들고 “투쟁은 계속된다, 불평등 체제 갈아엎자” “4.3항쟁 학살공범 미국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덕정까지 행진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4월 2일 북촌초등학교, 4.3 평화공원, 관음사 일대 등 항쟁지와 학살 터를 찾아 74년 전 제주 4.3 민중항쟁 정신을 되새기는 평화기행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친재벌 반노동 윤석열 정부에 맞서 오는 4월 13일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7월 총파업까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